

# 최초의 직선제 회장, 의미가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일시 2019년 11월 13일  
장소 중앙대학교 R&D센터  
인터뷰대상자 남영준 도협회장  
인터뷰진행자 류정상  
(KSLA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유정  
(KSLA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Q.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협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는 첫 직선제 선거라는 면에서 의미가 큰데요, 협회장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직선제는 간선제와 달리 기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라 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여러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기대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야 없지만 되도록 기대에 어긋나는 나쁜 오류 등은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회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회장이 되기 위해 역할 또한 엄중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책임 또한 막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의미가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만큼 회원들이 만족하고 또 잘 뽑았다고 박수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믿고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Q. 협회장님께서 후보자 연설 시 TV에 도서관 광고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전국의 도서관인들은 물론 대국민 도서관 인식개선과 홍보에 더없이 좋은 정책으로 여겨지는데 공약 실행의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예상 광고 시점과 횟수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A. TV에 도서관 광고를 임기중 한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석 달 전부터 YTN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준책방'이라는 코너를 이름을 걸고, 매

주 월요일 15분 정도 진행하고 있다. 생방송으로 15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도서관에 사연이 있는 애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책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주며 진행하고 있는데, 3분 정도는 틈틈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상식들, 분류나, ISBN, 사서, 정보서비스, 주제전문사서 등등의 사서들의 이야기와, 물리적 도서관환경 등, 도서관과 사서라든가 상식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와 이용자의 관계, 레퍼런스 툴, 빅데이터 등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도 올라와 있으니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다. TV 쪽으로는 도서관홍보를 시작하고 있다. 방송하면서 TV 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예시적으로 도서관대회를 다 큐3일과 같은 시점에서 촬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서관이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뛰어난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구성원들이 알고 있을지 궁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기 방송 등을 통해 쉽게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Q. 사서자격제도 관련하여 현재 준사서, 정사서 2급, 정사서 1급 배출에 대해 사회적으로 자격증에 따른 대우에 큰 차이가 없고, 평생교육원 등으로 특히 준사서 자격증이 비교적 쉽게 발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앞

으로 방향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A. 협회의 차원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을 하는 것이므로 코멘트하거나, 논의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정과 교수로서 문헌정보학 입장에서 볼 때, 도서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깊이가 서비스를 좌우한다고 본다. 준사서 → 2급정사서 → 1급정사서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통해 (기초교육만을 받고 바로 1급정사서 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의 질과 방향도 진화한다고 생각한다. 피상적 초보적인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많은 활용과 경험을 통해 고도화되며, 관리적입장등 모든 서비스 등을 진화하여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도서관의 전반적인 것까지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로서는 대학에선 최소한의 교육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격증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도서관 서비스적인 면에서 자격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전문성의 측면에 대한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서의 역량이다.

Q. 요즘의 화두인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서관이 이 흐름을 따라가려면 어떠한 마인드의 자세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 A. 4차산업관련하여 인공지능(AI), IoT, 블록체인 등이 있지만, 예를 들어 AI의 기본적 모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만들어 놓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인공지능이 형성되며,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계가 이해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시소러스, 분류표, 주제표 등등을 만들었듯이 이러한 것들이 기계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AI의 지식구조가 어떤 형태로 가장 의미가 있는가, RDF, xml 들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과 기계를 이해하기 쉽게 + 지식과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어서이듯이, 4차 산업에 있어서 로봇화, 데이터센싱 등 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자원을 어떻게 구조화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서비스대상이 인간과 기계까지 확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영역도 있지만 AI로서 인공지능 영역도 공존하고 있다. AI가 발달할수록 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다만 아무리 AI가 발달



해도 사서를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럴수록 사서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다.

Q. 협회에서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전문도서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여쭙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은 1인 사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구조가 많은데요, 협회차원에서 지원방안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라정책으로 기관에 따라서 전문도서관들은 각각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문도서관들과 공공도서관들과의 상생 협력 관련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요즘은 많은 대학 도서관들도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경쟁적 구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중에 대학홍보 기구 만드는 일, 나의 친구를 만드는 일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개방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관의 홍보+알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관 이전 도서관 등도 지역개방과 인력등 여러 가지 기관특성을 특화하여 제공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상향될 것이라 생각되며, 지역개방이 일상업무가 되어도 도서관에 대한 긍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옵션처럼 선택의 몫은 이용자라고 생각한다. 이용자측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Q. KERIS와 같은 대학도서관협의회 측에서는 전자정보 관련하여 국가라이선스로 구독하기도 하고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문도서관에서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KESLI 등과 관련하여 국가 라이선스 관련하여 혹시 지원이나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협회차원에서 국가라이선스에 대한 지원은 감당영역이 아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예산확보 작업 시, 세미나, 발표 등 지렛대로서 법률개정이나 협상역

할에는 동참해서 지원한다. 협의회 운영지원금은 모두 각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라이선스는 미국의 경우 RLG, 연구도서관 협의회인데 대학과 전문이 같이 통합되어 있어 연구하고 세미나 활동 등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간의 성격이 다른 문제이지만 대학과 다르게 연구소 기관은 하나로 통합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연구소도 아니고 행정부처 자료실, 진흥원 등과 같이 애매한 성격의 전문도서관들은 대학과 같은 국가라이선스 라인에 들 수가 없는 안타까움(현실적으로 전문은 각각의 기관의 특성이 다르므로 한 번에 통합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Q.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장도 맡으시며 전문도서관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중 전문도서관 관련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은 전문도서관에 대해 어떤 지원 계획 등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연구소나 기관(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도서관 등)들이 도서관으로 잡혀있지만 전문도서관으로 들어와 있고 연구소 도서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소, 정보화사회진흥원등, 도서관 건립 시 특별한 기준이 없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법정 필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구소나 기관 등 전문도서관 또한 법으로 반드시 도서관을 필수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회장으로서 또한 문헌정보학과 교수로서, 과기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에 명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Q.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임기 중 사서수당을 현재보다 인상시키려는 목표와 도서관협회 회관 또한 건립하려는 목표를 하고 있다. 도서관협회 회관을 건립하자는 목표는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사서수당을 상향 시켜보겠다는 의미로 공론화를 시키려고 한다. 사무관 이상은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급 이하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금액이 목적이 아니며, 자격수당이 가지고 있는 역할 등을 통해, 우리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하며 차후의 기대에 출발점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